

홀트 소식

아이들은 사랑받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2015
Summer

vol.178



회원지원인
홀트아동복지회

www.holt.or.kr



여름 이야기

올해 '제9회 입양가족 사진·동영상 공모전' 동영상 부문 대상을 받은 김현민(10)·김규담(7) 남매. 웃는 모습까지 닮은 남매 덕에 매일매일이 행복한 가족입니다. (6p 계속)

사진 | 박시홍 사진작가·룩스 스튜디오



홀트아동복지회 모바일 홈페이지
m.holt.or.kr

통권 | 178호·기간 **발행일** | 2015년 6월 18일 **발행인** | 말리 홀트 **편집인** | 김대열
발간위원 | 조철행(자원개발실장), 홍미경(홍보팀장), 박재범(후원팀장), 조선미(국내입양팀장), 이은정(해외사업팀장), 김혜성(아동양육팀장), 이창신(일산복지타운), 신유미(홍보팀) **발행처** | 홀트아동복지회 홍보팀 **디자인** | (주)아이디북 TEL: 02-6271-1900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19 TEL: 02-331-7079 FAX: 02-331-7080
이메일 | pr@holt.or.kr **홈페이지** | www.holt.or.kr
구독 요청·좋은 사연·좋은 제언을 기다립니다.

Contents

- 03 **Holt Letter**
구름빵, Dear Family Box로 나눔을 실천해주세요!
- 04 **홀트 창립 60주년 연중 시리즈**
숫자로 보는 홀트의 기록들
- 06 **입양, 우리 품으로**
제9회 입양가족 사진·동영상(UCC) 공모전 '아름다운 행복' 시상식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확인하다
- 10 **사랑으로 크는 아이들**
위탁아이들을 위한 행복한 치료 유리드믹스
- 12 **기획**
아동복지의 새 장을 쓰게 될 또 한 번의 날갯짓
홀트인천복지센터 설립
- 16 **Love In World**
'Hands-On Cambodia 2015'
성장 국외입양인들의 캄보디아 봉사 여행
- 18 **곶곶GoodGood한 엄마의 첫걸음**
싱글맘이 워킹맘이 되는 순간! 켄거루 스토어 1호점 오픈
- 22 **Holt Interview**
'어머니가 걸었던 위탁모의 길, 이제 제가 걸어요'
장은주 위탁모
- 24 **나눔이웃 나눔기업**
작지만 큰 변화를 몰고 온
나눔 이야기, 후원기업 쉼즈라루즈
- 26 **희망 풍경 1**
장애인 가족 한마음 페스티벌
- 28 **희망 풍경 2**
풍요로운 노년이 미소를 짓다
어르신 마음 탄탄교실
- 30 **Holt News**

홀트아동복지회			
이사회 말리 홀트 이사장 이해경 이사(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임부웅 이사(HICS 부회장) 정용근 이사(전)동국대학교 교수 설태호 이사(주복상사 대표) 김경희 이사(홀트전국후원회 회장) 김정오 이사(연세대학교 교수) 박경수 이사(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홍현국 감사(공인회계사) 최수열 감사(공인회계사)	전북사무소 www.jbholt.or.kr T.063)288-0880 충청사무소 www.ccholt.or.kr T.042)586-1983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T.032)424-1391 전주영아원 T.063)222-1559 홀트대구어린이집 T.053)746-7504 마포어린이집 T.02)334-4743 중동어린이집 T.02)375-6755 홀트어린이집 T.031)217-0437 하남은방울어린이집 T.031)790-2970	미혼모자시설/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고운돌·홀트고운학교 www.goun.or.kr T.031)216-9004 아름뜰 www.holtarum.or.kr T.02)334-4614 아침뜰 www.achim.or.kr T.042)585-3004 마포클로버 www.mapoclover.or.kr T.02)322-3325 대전클로버 www.achim.or.kr/sub08/sub08_1.php T.042)583-4006 대구클로버 www.holtlove.or.kr T.053)654-0181
본부 전국미혼모지원센터 T.02)331-7000 T.1588-7501	부속기관 홀트일산복지타운·일산요양원 T.031)914-6631 홀트학교 T.031)915-2911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T.031)929-1400 운봉종합사회복지관 T.051)543-2431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 T.031)790-2900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 T.053)746-7501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T.051)760-3600 달서구분리종합사회복지관 T.053)563-1007 춘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33)251-8014 마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마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2)3142-5482 T.02)227-8877 수성구건강가정지원센터·수성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T.053)795-4300	해원원조사업 캄보디아사무소(홀트드림센터) T.070)8244-7019 몽골사무소(홀트드림센터) T.070)4006-4116	
지방사무소 서울사무소 www.holt.or.kr T.02)331-7000 강원사무소 www.kwholt.or.kr T.033)251-2344 경기사무소 www.kgholt.or.kr T.031)217-5999 경남사무소 www.gnholt.or.kr T.055)243-0009 광주사무소 www.gjholt.or.kr T.053)756-0183 대구사무소 www.dgholt.or.kr T.053)756-0183 부산사무소 www.bsholt.or.kr T.051)465-0224 인천사무소 www.icholt.or.kr T.032)424-0145	하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 T.031)790-2966 입양가정지원센터 T.02)6938-5550 홀트심리상담센터 T.053)627-8875		

홀트아동복지회는 1955년 설립되어 소외된 아동·장애인·이웃을 돕는 사회복지 전문기관이며 전국 10개 사무소를 통해 국내입양 활성화를 펼치고 있습니다.

**구름빵,
Dear Family Box로 나눔을 실천해주세요!**

잠시 피었다가 시들어버리는 꽃보다 시리도록 짙은 녹음이 더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온 산과 들이 짙은 푸른 빛으로 물들어가고, 따가운 햇볕을 받으며 성장을 재촉하고 있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홀트 가족 모두에게도 풍성한 결실이 있길 꿈꾸며, 계절의 변화에 맞추어 최선을 다하는 희망의 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홀트는 창립 60주년이 되는 올해를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간으로 설정하고, 변화에 잘 적응하며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복지 분야의 한 축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홀트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일은 미혼모 엄마들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독교 성결교회(총회)와 협약을 맺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미혼양육모 가정에 매월 일정 금액의 후원금을 지원하는 '곶곶한 엄마' 사업이 있습니다.

셋째, 한 달 분의 분유와 기저귀 등 양육물품을 지원하는 '365 Baby Care Kit' 사업이 있고 미혼모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켄거루 스토어'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후원받은 물건을 판매하는 매장을 개설해 양육미혼모가 직접 판매를 하고 그 수익금으로 월급을 받으며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IBK 기업은행의 후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혼양육모 자조모임을 통해 서로 격려하고 다양한 정보를 교환, 아동을 잘 양육함으로써 안정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 사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지원하기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홀트에서 처음으로 인천에 개소했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동들이 더 이상 학대받는 일이 없도록 돕는 데 홀트가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름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벌써 침을 삼키는 분이 계시겠지요? 먹는 것이 아닌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홀트에서 '구름빵' Dear Family Box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더 많이 홍보해주시고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홀트는 후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수익금을 국내 저소득층 자녀 지원, 미혼모 지원, 아동 양육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나눔 실천 사업에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자세한 내용은 홀트 홈페이지나 롯데 홈쇼핑에서 정보를 받을 수 있고 구입도 가능합니다).

우리 주위의 소외된 이웃들이 꿈의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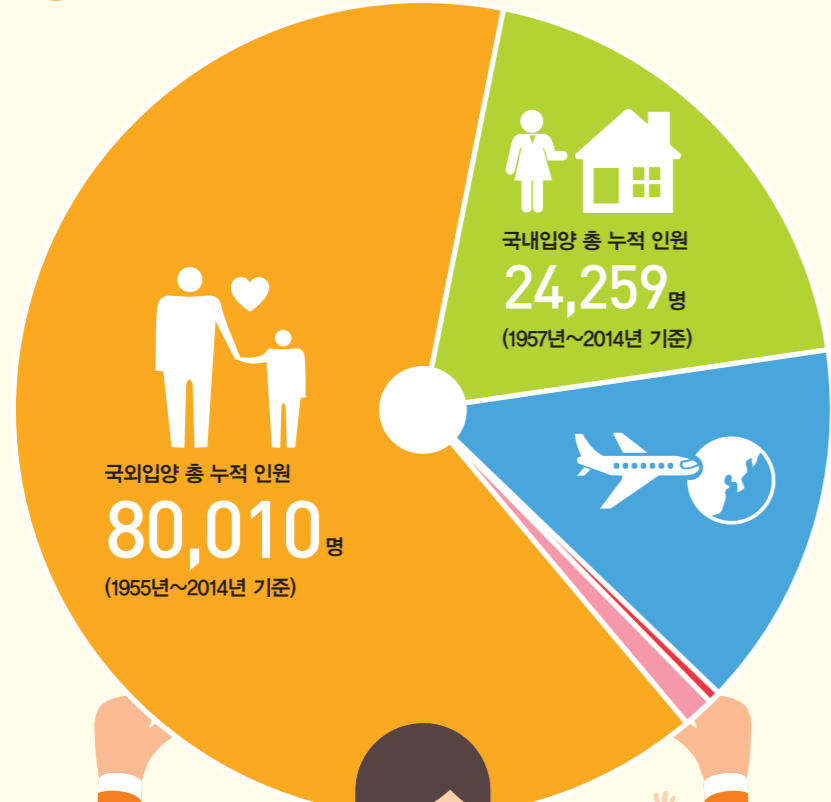
회장 김대열 드림



숫자로 보는 홀트의 기록들

홀트가 품은 온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을 보다 나은 곳, 살아갈 만한 곳으로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홀트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보내준 응원 덕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세월 홀트가 퍼뜨린 사랑과 나눔의 결실은 어느 정도일까요? 숫자로 그 60년의 기록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입양 복지



- 모국방문 입양인 & 입양가족 총 누적 인원
17,978 명
 (2000년~2014년 기준)
- 모국연수 총 누적 인원
450 명
 (1992년~2014년 기준)
- 친가족 상봉 총 누적 인원
1,640 명
 (1999년~2014년 기준)

복지 사업

후원자 총 누적 인원 30,541 명 (2014년 정기후원 기준)	후원 모금액 78,795,136,979 원 (1955년~2014년 기준)	자원봉사자 총 누적 인원 5,369 명 (실적 등록 봉사자 기준)	
위탁모 총 누적 인원 4,481 명 (1966년~2014년 기준)	미혼모 상담 누적 인원 112,345 명 (1955년~2014년 기준)		
장학사업 총 누적 인원 & 금액 9,048 명 3,398,595,000 원 (1982년~2014년 기준)	해외 빈곤가정 교육·급식 이용 총 누적 인원 캄보디아 128,584 명 몽골 3,543 명		
장애인		직원	
중증 장애인 보호 총 누적 인원 1,070 명 (1975년~2014년 기준)	장애인 특수교육 총 누적 인원 1,831 명 (1962년~2014년 기준)	재직 직원 총 인원 3,010 명 (1955년~2014년 기준)	퇴직 총 인원 2,302 명 (1955년~2014년 기준)
단위기관			
지역복지 서비스 이용 누적 인원 15,324,952 명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 누적 인원 496,355 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누적 인원 278,269 명	



제9회 입양가족 사진·동영상(UCC) 공모전 '아름다운 행복' 시상식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확인하다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삶의 가치를 전하고자 개최된 제9회 입양가족 사진·동영상(UCC) 공모전 '아름다운 행복' 시상식은 우리회 말리 홀트 이사장, 김대열 회장, 배우 송재호 홍보대사, 롯데호텔 송용덕 대표이사 사장, 입양가족 등 약 60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말리 홀트 이사장은 "이토록 값진 시간을 마련해줘 감사하고 기분이 좋다"라는 인사말로 축제의 막을 올렸습니다. 이에 롯데호텔 송용덕 대표이사 사장 역시 "홀트 창립 60주년이 되는 해에 입양가족 사진·동영상(UCC) 공모전 시상식을 롯데호텔에서 열게 되어 의미가 크다"며 "가능하면 매년 함께하고 싶다"고 해 환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행복'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사진 99점, 동영상 38점 등 총 137점이 출품되어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심사는 각각 조세현 사진작가와 송재호 홍보대사가 맡았습니다. 이날 송재호 홍보대사는 "갈수록 입양가족들의 참여와 출품작 수준이 높아져 기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해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하이라이트라 해도 과언이 아닌 입양가족 소개와 시상식이 이뤄졌습니다. 수상은 부문별로 대상·우수상·입상 등 10점씩 총 20개 작품이 선정되었으며, 수상가족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키자니아 입장권(주)호텔롯데 협찬이 주어졌습니다. 마지막을 장식한 작품 시연 또한 보고만 있어도 가슴속 꽃망울이 뽕뽕 터지는 듯 인상적이었습니다.

지난 6월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갤러리에서는 하오의 봄별과 같이 매우 따뜻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올해로 9회를 맞은 입양가족 사진 및 동영상(UCC) 공모전 '아름다운 행복' 시상과 수상작품 전시가 열린 까닭입니다. 감동, 눈물, 그리고 행복이 함께한 현장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사진 대상 윤학신·김지인 씨 가족 <아기천사>

"동하를 만난 것은 우리 생애 최고 행운!"

웃을 때면 특히 도드라진다는 윤학신·김지인 씨 부부의 반달형 눈매를 어찌면 저리도 꼭 닮은 걸까요.

"그래서였나 봐요. 한눈에 동하가 우리의 아이란 생각이 들었거든요(웃음). 양부모 교육을 받을 당시 동하를 처음 봤는데, 돌아온 후에도 초롱초롱 빛나던 아이의 눈망울이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결국 떨리는 마음으로 복지사님에게 전화를 드렸고 작년 12월 17일 동하와 저희는 비로소 한 가족이 되었죠."

물론 부부의 입양 결심에 반대도 많았습니다. 올해로 결혼 4년 차. 한창 신혼인데다가 30대 초반인데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며 재고를 권하는 목소리가 대부분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의 생각은 확고했습니다.

"웬진 모르지만 어딘가에서 우리를 기다릴, 누군지 모를 아이가 그저 보고 싶고 궁금했어요. 입양은 임신의 여부를 떠나서 '결혼하면 꼭 해야겠다' 마음먹고 있던 바이기도 했거든요."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크는 게 너무나도 아쉬워서 틈만 나면 동하의 일과를 사진으로 남긴다는 아빠 윤학신 씨. 공모전에 내놓은 작품 또한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동하의 어여쁜 모습을 자랑하고 싶어 입양가족 카페 '홀트한사랑회'에 올렸는데 어떤 분이 홀트 입양가족 사진 공모전에 응모해보라 권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추억 삼아 참여했는데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을 줄이야!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하하하."

동하에게 항상 '휴식 같은 나무'가 되어주고 싶다는 윤학신·김지인 씨 부부. 사랑이 충만한 아빠와 엄마 덕분에 동하는 오늘도 한없이 웃습니다.

동영상 대상 김한수·강명수 씨 가족
〈Happy Things〉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해준 규담이는 우리 집 보물!”

7살 꼬마숙녀 규담이는 인디밴드 제이래빗의 노래 ‘Happy Things’라는 곡으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합니다. 공모전 소식을 접하고 출품을 결정한 김한수·강명수 씨 부부가 동영상 배경음악으로 동일 곡을 선택한 것도 그와 같은 이유.

“원곡의 가사가 규담이의 일상과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개사를 했어요. 피아노 연주는 제가 현재 초등학교 교사로 있어서 제자 중에 피아노 잘 다루는 학생한테 도움을 좀 청했죠.”

김한수 씨 부부가 규담이를 만난 것은 지난 2010년 1월 25일 우리회 경기사무소에서였습니다. 당시 규담이는 생후 5주 차의 갓난아기였죠.

“신혼시절 남편 유학길에 동행해 미국에서 잠깐 살았는데 그때 만난 옆집 백인 부부 덕에 입양에 대한 의지가 더욱 확고해졌어요. 연애 때부터 ‘결혼하면 우리도 입양하자’는 말을 종종 주고받긴 했지만, 사실 막연한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부 중 아내 되는 분이 입양아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자라온 환경에 대해 얘기를 해주는데, 그때 한국으로 돌아가면 바로 입양을 추진해야겠다 결심이 섰죠. 굉장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랐구나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거든요.”

실제로 김한수·강명수 씨 부부는 귀국하자마자 입양 절차를 밟았고 운명처럼 규담이를 만나게 됐습니다. 아들 현민이를 낳아 키우면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의 중요성을 절절히 깨달아 입양에 더욱더 확신이 생겼다” 말하는 김한수·강명수 씨 부부. 유자녀 입양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일각의 시선을 무색케 만드는 경험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규담이 덕분에 미혼모에게도 관심이 많아져 최근에는 홀트 미혼모자시설 고운들과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를 연계해 필요물품 지원활동 등을 실천하고 있어요. 규담이가 아니었더라면 아마... 하지 못했을 생각이겠죠(웃음).”

“현민·규담 남매가 사회에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이는 김한수·강명수 씨 부부. 가족의 내일에 언제나 장밋빛이 가득하길 염원합니다.



사진 우수상 장희용·김미야 씨 가족
〈남편 하나, 애인 넷〉



동영상 우수상 박선영·이사라 씨 가족
〈엄마의 첫사랑〉



“다섯 남자와 한 집에 사는 저, 부럽죠?”

“어렵게 첫째를 임신하곤 ‘둘째는 입양해야겠다!’ 생각해서 홀트 부산사무소를 방문했는데 상담을 받아보니 남아가 여아에 비해서 입양될 확률이 현저히 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2007년, 상준이를 가족으로 맞이했죠.”

셋째 상혁이와 넷째 상현이도 마찬가지로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경우도 많았습니다.

“둘째 상준이가 어느 정도 크자 자신을 낳아준 엄마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상심해서 한동안 의기소침하게 있더라고요. 그러다 셋째 상혁이가 우리 가족이 되고부터 많이 달라졌어요. 자존감도 높아졌고 한층 의젓해졌죠.”

하루는 상혁이가 “형아, 나랑 큰형이랑 엄마가 다르대” 울면서 말하자 오히려 “나도 그래. 하지만 우리는 다 한집에 사니까 가족이야. 게다가 엄마는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는 걸!”이라며 동생을 다독였다는 상준이. 그래서 훗날 막내 상현이가 똑같은 문제로 눈물을 보이나 해도 부부는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가족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아들들이 서로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기에 말입니다.

“우리 큰딸 민진이, 매일매일 행복하길!”

2010년 10월 민진이를 만나서 추억을 쌓은 지도 어느덧 5년여. 그간의 시간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만든 동영상이 이토록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줄은 몰랐으며, 이사라 씨 부부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더구나 해당 동영상 〈엄마의 첫사랑〉은 민진이의 기여도가 절대적이란만치 높은 작품. 다름 아닌 내레이션 파트를 민진이가 직접 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한글을 몰라서 엄마가 읽으면 따라서 말하는 식으로 촬영할 수밖에 없었지만, 민진이가 함께 만든 동영상이라는 데 의의가 있는 거죠, 뭐~ 호호호.”

영상과 더불어 깔리는 본인의 목소리가 신기한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동영상을 보고 또 본다는 민진이. 민진이가 기특한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마찬가지로여서 수상 소식을 듣고는 펄 듯이 기뻐하셨답니다.

“민진이에게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선물이 됐으면 한다”는 박선영·이사라 씨 부부에게 민진이는 어떤 존재냐고 묻자 담백하게 ‘우리 큰딸’이라 대답합니다. 새삼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 네 음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HCT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우리회 일시보호소는 유난히 시끌벅적합니다. 위탁아동들의 다양한 발달을 위해 2014년 3월부터 매일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씩 진행해오고 있는 프로그램의 특별편! 바로 '유리드믹스'란 음악 교육이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대기인원이 늘어서 있을 정도로 위탁어머니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이 프로그램의 이야기를 담당 선생님에게 들어봤습니다.

위탁아이들을 위한 행복한 치료 유리드믹스



유리드믹스 프로그램 김선주 선생님

Q. 유리드믹스가 음악을 기반으로 하는 것은 알겠는데, 정확하게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리듬을 바탕으로 음악적 두뇌와 감각을 기르는 교육이에요. 음악을 기반으로 해서 연관된 미술이나 무용, 언어 등 다양한 예술성을 발달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집중력이 높아지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줄 알게 되기도 하지요. 발달연령에 따라 악기를 다르게 사용하고 오감을 자극하면서, 대근육이나 소근육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용을 조절하고 있으며, 무조건 시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노래에 맞춰 원을 그리며 도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이걸 '이제 시작'이라는 표현을 음악과 더불어 신체를 통해 알게 하는 거예요. 또 발달연령에도 맞고 위탁어머니와도 함께할 수 있는 악기를 탐구해보는 시간 후에는, 클래식을 들으며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 각각의 근육을 사용할 수 있는 놀이를 하죠. 그리고는 마무리 인사를 하며, 위탁어머니들께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놀이를 알려드리기도 해요.



1. 위탁아동들의 성취감을 키워주는 컵블러 놀이



2. 풍선의 탄성을 활용한 소근육 자극 발달놀이

Q. 우리회에 오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숙명여대 유리드믹스 연구회 쪽에 먼저 연락을 주셔서, 위탁아동들을 위한 발달 프로그램 교육 요청을 주셨고, 제가 함께하게 되었죠. 원래는 일회성으로 한 번만 오는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나 위탁어머니 모두 무척 잘 대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오길 잘했구나' 생각하며 지금까지 진행해오고 있어요.

Q. 입양 대상 위탁아동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위탁어머니들이 아이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예뻐하셔서 놀랐고, 연세가 많은 분들은 아이들의 뜻을 다 받아주는 편이라 대체로 발달이 느릴 수 있는데 별로 그렇지 않다는 점도 놀라웠어요. 또 유리드믹스 프로그램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의 상태가 처음보다 개선되고 있는 점들이 눈에 보일 땐 정말 큰 보람을 느끼죠. 다만 제가 입양 대상 아이들과 함께해본 경험이 없었던 탓에 "아이가 입양을 가게 돼 앞으로는 볼 수 없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 슬펐어요. 물론 함께할 '부모'를 만나는 건 큰 기쁨이지만 몇 달간 정이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좋은 기억을 갖게 해주고 싶어 아이들의 선물을 준비하곤 하죠.

Q. 수업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요?

위탁어머니들이 의외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란 사실이에요.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지 않고, 믿고 맡겨주시면서 "아이들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씀해주시는 게 참 감사했어요. 재미있는 점은 자신이 키우는 아이가 다른 아이

에 비해 조금이라도 못하면 내 일처럼 속상해하고 샘을 내시면서도, 내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함께 잘하길 바란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대체로 발달이 양호한 편이지만 언어는 좀 늦는 걸 발견할 수 있는데, 살펴보니 아이들이 표현하기도 전에 위탁어머니들이 검색을 채고 먼저 해결해주는 걸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만큼 아이들한테 관심이 많아서인 것 같아 좋았지만 언어발달을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Q. 특별히 기억나는 일이 있으세요?

매번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특히 발달 단계에 따라 위탁어머니가 없는 채 진행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만약 프로그램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놀이를 하는 아이가 있으면 또 다른 아이들이 손을 잡아서 끌고 오거나 그 놀이기구를 막고 서서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게 참 인상 깊었죠. 그런 모습을 보면 보람도 훨씬 크고 참 행복해지죠.

Q. 앞으로의 계획이나 우리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보육사업 지침상 입양 대상 아동들은 36개월이 지나야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린이집이 보호의 차원뿐 아니라 사회성이나 다른 발달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는 걸 생각하면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홀트아동복지회에서 이렇게라도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제가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무척 기분이 좋답니다. 여건이 되는 한 지금처럼 계속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글 _ 김혜성 팀장 · 아동양육팀



아동복지의 새 장을 쓰게 될 또 한 번의 날갯짓, 홀트인천복지센터 설립



지역사회의 아동복지에 기여하기 위해 1977년 인천아동상담소를 개소, 국내입양과 미혼모 상담, 요보호아동의 복지를 실천해온 우리회. 이후 2004년부터는 인천광역시 국내입양 활성화 운영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국내입양 상담과 사후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해 인천광역시의 아동복지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는데, 그에 안주하지 않고 아동복지 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또 한번 도전을 시도했습니다. 바로 요보호아동 상담·아동보호 전문기관·심리상담센터를 유기적으로 운영하며 통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실천, 한국 아동복지의 발전과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등장한 홀트인천복지센터의 개관이 그것입니다.

1층 미혼모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캥거루 스토어 2호점 오픈

홀트인천복지센터의 1층에는 올해 7월, 캥거루 스토어 2호점을 오픈할 계획입니다. 캥거루 스토어는 아동을 홀로 양육하는 미혼한부모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일자리 공간을 제공하는 물품판매 스토어로, 채용 미혼한부모들이 기부받은 물품을 직접 판매하고 직업훈련을 받음으로써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디딤돌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싱글맘이 워킹맘이 되도록 새로운 시작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층 아동과 가족들의 건강한 삶을 돕는 홀트인천심리상담센터

홀트인천심리상담센터는 입양아동 및 학대받은 아동의 사후 관리에 초점을 두고 운영하며, 우리회의 오랜 입양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입양 후 발생하는 가족의 심리,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지기반이 되어주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다양한 사회문제와 병리현상의 급증으로 이러한 환경에 노출된 아동들에게 다양한 심리·정서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사회 적응이나 성격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기에 적절한 상담을 통해 치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의 입양아동이나 정신적·신체적 장애아동 및 일반아동들에게 전문적이고 다양한 심리·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 보람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홀트인천심리상담센터의 통합적 상담 서비스가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38년간 인천시에서 사회복지 활동을 펼쳐온 우리회가 앞으로 아동보호, 입양,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심리상담센터의 유기적 운영을 통해 아동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회장 김대열-

3층 국내입양과 미혼부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홀트인천사무소

홀트인천사무소는 1977년 1월에 개소해 38년간 인천시에서 국내입양 상담 및 미혼부모 상담과 아동 양육, 사후 관리, 후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는 인천광역시 국내입양 활성화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주관하고 입양부모 교육, 국내입양 활성화 캠페인, 입양가족 캠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국내입양의 활성화와 건전한 공개입양 문화의 확산 및 입양의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미혼한부모 복지 증진을 위해 미혼모 주거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미혼모가 아동이나 자신의 장래를 위해 최선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정신적·육체적인 상처로부터 회복,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원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참여와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 및 모금활동을 벌여 사회에서 소외된 아동들에게 각종 후원도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복지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4층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담당하는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사례 관리, 각종 서비스 업무 등을 수행하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하는 아동복지기관입니다.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의 심각성으로 2014년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 아동 보호 절차를 대폭 강화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었으며,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예산을 대폭 증액해 2015년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전국 6개 증설과 상담원 증원을 발표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또한 아동학대 상담 건수가 증가해 상담기관이 부족하고 학대아동 전용 쉼터가 전무한 상황이었데 홀트인천복지센터가 생기면서 통합적인 아동복지 기능과 아동복지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 인천복지센터의 사업 방향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수행하는 모델로서 요보호 아동의 발생부터 아동 보호에 이르기까지 아동기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요인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복지전문기관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다하며 아동복지의 전문 분야 및 아동복지 전문기관의 위상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동학대전문쉼터의 개설을 준비하고 있어 학대 피해아동의 일시보호와 안전한 아동보호가 기대되며, 홀트인천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해 아동의 심리, 정서적인 서비스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캥거루 스토어와 미혼모 주거지원사업 등 신규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미혼한부모의 복지 증진에도 기여하며, '아동의 행복과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우리회의 사명과 이념을 실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할 것입니다. Holt

글_ 손윤실 센터장 · 홀트인천복지센터



1. 홀트인천복지센터 개관식
2. 축하 메시지를 전하는 송재호 홍보대사
3. 홀트인천복지센터 전경



아동학대, 당신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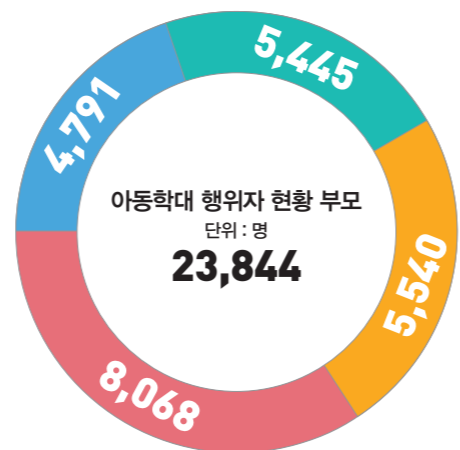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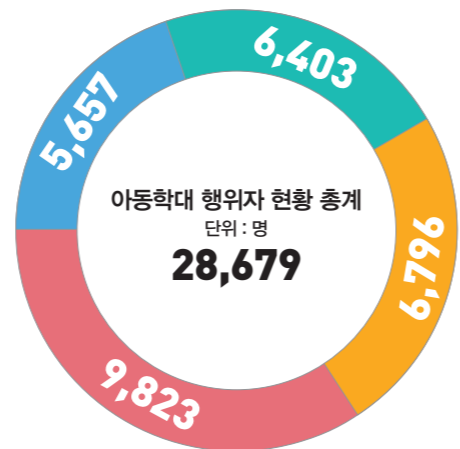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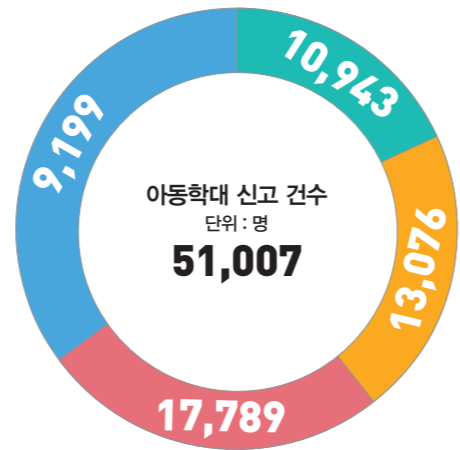
내가 하면 훈육, 남이 하면 학대. 하지만 훈육 차원의 체벌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동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해야 우리 사회의 미래가 건강하게 지켜질 수 있기에 지난 60년 아동 행복 중심의 복지를 실천해온 우리회는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위탁 운영,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아동의 출생부터 성장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외부적 위험 요소를 복지적 측면에서 보호·예방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아동학대의 기준은 뭘까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18세 미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아동학대가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10살 난 자녀에게 숙제나 공부할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머리, 팔, 허벅지 등을 회초리로 수십 회 때려 명이 들게 하는 등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 대해 A씨는 훈육이라 주장했으나 징역 6월, 가정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령받았고, 2012년 3월 울주군의 한 마트 앞에서 70대의 B씨가 9살, 11살의 C양과 D양에게 접근해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사랑합니다'라며 볼에 입을 맞춘 것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돼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출처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2010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자료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년 통계는 속보치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아동학대 80% 이상이 가정 내, 부모에게서 일어납니다

2012년 12월 인천에서 10살의 아이가 계모에게 소금밥으로 학대당해 사망한 사건, 2013년 10월 울산에서 8살의 어린아이가 계모에게 학대당해 갈비뼈 16개가 부러져 사망한 큰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2014년 2월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안)'을 발표했고, 9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대폭 강화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0년 9,199건으로 시작해 2014년에는 1만 7,789건으로 5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어린이집 학대 사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사실 아동학대는 가정 내 부모에 의한 발생이 80%를 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동 68명 중 다수의 가해자는 친부모였습니다. 발생 주요 원인은 양육 태도 및 방법 부족(32.6%), 사회·경제적 스트레스(22.4%), 가족 간 갈등(9.4%)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정 내 아동학대가 좀처럼 감소하기 어려운 이유는 체벌에 대한 사회 인식, 즉 친권을 중시하는 문화적 특징에 따라 체벌이 가정 내 훈육 방법의 일환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사회 전반에 팽배해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학대는 개인·가족·사회를 멎게 합니다

2014년 세계아동학대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를 경험한 사람은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폭력 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일반인보다 30% 이상 높다"고 합니다. 2013년 11월 미국 위스콘신대학 연구팀은 아동 학대 피해아동들의 대뇌는 학대를 당하지 않은 아동들의 대뇌보다 전두엽과 해마 영역 간 연결이 손상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불안'과 '공포' 감정을 조절하는 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보고서는 부모를 살해한 존속살해범 300명 중 90%가 아동학대 피해자였고, 국내에서도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지존파 등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트린 연쇄살인범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아동학대' 피해자였다는 걸 볼 때 아동학대는 사회에 큰 악을 미치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모든 아동학대의 결과가 아닌 일부의 근거일 뿐이지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건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사랑받을 때 아름답다"는 홀트아동복지회 창립자 버다 홀트 씨 말처럼 아동들은 사랑받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기에, 우리회와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예방 강화와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통해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 및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글_김은희 팀장 ·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주요사업

아동보호 기본 사업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를 포함해 학대 아동 및 가족, 학대 행위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 사업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권리 교육과 신고 의무자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합니다.

아동학대 예방 홍보 사업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시민의 인식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홍보 사업을 진행합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112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연락처 032-424-1391

'Hands-On Cambodia 2015'

성장 국외입양인들의 캄보디아 봉사 여행

미국이나 유럽에서 성장한 입양인들에게 자원봉사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체득된, 새삼스럽거나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저희회는 많은 입양인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그들이 자신의 모국인 한국에 와서도 자원봉사활동을 찾아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프로그램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저희회와 뜻을 함께할 수 있는 입양인들과 캄보디아 봉사활동을 떠나보면 어떨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프로그램이 'Hands-On Cambodia 2015'. 그 아름다운 여행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한껏 기대에 들떠 있었습니다. 세 차례나 되는 오프라인 사전 모임과 SNS를 통해 수시로 진행되는 소통, 아이들을 위한 수업·놀이 계획, 점심 식단에 맞는 음식과 선물을 준비하는 과정, 그 모든 것부터가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2009년 홀트 홈커밍 프로그램 참가로 한국에 와서 성인들의 영어 강사를 하고 있는 토마스, 전 일 정 동안 멋진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만들어준 스티앙, 한국에서 박사 과정을 공부하며 캄보디아 미술 수업을 진행해준 카린, 미국에서 캄보디아로 와준 뮤직비디오 감독 마이클, 비보이 짝, 이미 일산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랜디·조이·맥스까지 다양한 재능을 지닌 입양인들의 참여로 프로그램은 차근차근 순조롭게 준비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출발한 마이클은 이미 며칠 전에 도착해 온라인으로 부지런히 캄보디아 소식을 전해주고, 나머지 참가자 9명은 캄보디아에 도착하자마자 다음날 수업과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밤늦은 줄도 모른 채 의견을 나누기에 바빴습니다.

뜨거운 햇살보다 눈부셨던 아이들의 순수한 미소

드디어 캄보디아 홀트드림센터에서의 첫날. 반짝이는 눈망울로 쳐다보는 수십 명의 아이들로 인해 40℃를 웃도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장 국외입양인들은 저마다 의지를 불태우며 봉사활동에 전념했습니다. 드림센터 직원이 우리 그룹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해주었고 곧바로 한쪽 교실에서는 색실로 팔찌 만들기 수업을, 다른 교실에서는 비보잉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리더가 되는 수업 진행자와 몇 명의 보조 진행자가 수업을 도왔고, 1층 홀에서는 아이들 점심 준비에 구슬땀 범벅이 될 정도로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더위에 지치기도 했지만 성장 국외입양인들은 처음으로 접한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과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첫날의 흥분 속에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둘째 날 오전은 홀트드림센터 주변 지역을 돌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 정화 활동이 있었고, 이후 이어진 생일 파티에서는 그 달에 생일을 맞는 아이들을 위한 파티가 준비되었습니다. 카린과 마이클, 랜디가 생일을 맞는 아이들을 위한 페이스 페인팅을 하는 동안 나머지 성장 국외입양인들은 초코파이를 이용해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맥스는 트럼펫을 가져와 생일 축하 노래와 그 외의 특별 연주를 했고, 선물과 과자도 나누어주며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세 그룹으로 나뉘어 아이들의 가정을 방문, 쌀과 장난감을 선물로 나누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홀트드림센터 학생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는지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여서 많은 기대를 했으나 직접 맛따뜨린 현실은 상상보다 훨씬 열악했습니다. 바깥보다 더운 집안에서 땀을 비오듯 쏟기도 했고, 12명의 가족들이 어떻게 다 누워 잘 수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좁은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갖는 자신만의 인형과 장난감을 보며 해맑은 웃음을 보이는 아이들에게 기쁨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끼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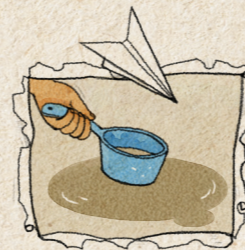


풍요로운 사랑과 진리를 얻은 축복의 시간

둘째 날 밤, 아이들을 좀 더 알고 싶은 성장 국외입양인들이 모여 방법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면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각불을 차며 스포츠 수업을 진행하고 색색의 나무 막대로 예쁜 상자를 만드는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6명의 아이들을 인터뷰할 수 있었고, 아이들의 소박한 꿈과 미래에 대한 희망, 사랑을 이야기하며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홀트드림센터에서 영어를 배울 기회가 있어 너무 좋으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한국에 가는 것이 꿈이고 힘을 가진 군인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아이들...

카메라를 만져본 적이 없는 아이들을 위해 직접 사진을 찍어보게 하고, 아이들이 찍은 사진과 봉사활동 기간 동안 만들었던 영상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함께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가정을 방문할 때 찍었던 가족사진을 현상해 선물로 주자 기뻐하는 아이들의 모습, 그것을 보며 더 행복한 것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스티앙은 홀트드림센터에 포토 프린터를 기증했으며, 마이클과 맥스는 손목시계와 장난감을 선물로 전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선물을 준비하며 내가 가진 것을 나누기 위해 떠난 봉사 여행이었지만, 우리 모두는 아이들로부터 너무 많은 선물을 받았습다. 행복은 물질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단순한 깨달음부터 나눔이 주는 가슴 벅찬 풍요로운, 사랑은 나눌수록 더 커진다는 진리까지. 이 모든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던 삶의 귀한 시간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모두 제자리를 찾아 미국으로, 한국으로 돌아온 후 다시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저마다 아이들을 위한 후원을 시작하겠다는 결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따로, 또 같이 다음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서로를 보며 아직까지 남아 있는 캄보디아 나눔 온기에 각각의 가슴 한켠이 따뜻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싱글맘이 워킹맘이 되는 순간! 캥거루 스토어 1호점 오픈

지난 5월 28일, 우리회 경기사무소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IBK 기업은행의 후원, 그리고 HS애드의 재능기부로 그 막을 올린 캥거루 스토어 1호점이 드디어 오픈한 것입니다. 싱글맘이 워킹맘이 되던 순간, 많은 내빈들이 참여해 그 기쁨이 두 배가 됐던 순간을 소개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수원에 위치한 경기사무소가 시끌벅적합니다. IBK 기업은행의 전폭적인 후원과 현장 자원봉사, HS애드의 CI 재능기부 등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 준비를 마쳤지만, 보다 완벽한 개점식을 위해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 30분, 드디어 우리 사회에 또 한번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우리회의 도전, 캥거루 스토어 1호점 오픈식이 테이프 커팅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쁜 시간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셔서 더욱 기쁘다”는 말리 홀트 이사장의 말처럼 이날의 행사에는 김대열 회장 등 우리회의 관계자뿐만 아니라 후원자·후원 기업들과 수원시 감동근 제1부시장 등 많은 내·외빈들이 참석해 자리가 더욱 빛났습니다. 언론들의 취재 열기도 뜨겁고,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용기 있는 발걸음에 이토록 많은 사람의 관심이 함께하다니 시작이 무척 좋습니다.



아이를 품고 세상을 향해 도약하는 캥거루처럼

미혼한부모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뭐니뭐니해도 경제적인 어려움일 것입니다. 홀로 아이를 양육하면서 사회생활을 하기가 얼마나 어려울지는 직접 경험해보지 않아도 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회는 그런 싱글맘들의 자립을 돕고, 나아가 아이들에게 건강한 양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 지난 12월부터 ‘캥거루 스토어’를 기획·준비해왔습니다. 오랫동안 미혼한부모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들었던 가장 큰 요구가 바로 일시적인 도움이 아닌 ‘자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성된 것이 한부모가족복지센터, ‘자립의 장을 만들어보자’는 팀원들의 치열한 고민 끝에 기업과 개인에게 물품을 후원받아 시중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미혼한부모들이 판매하는 캥거루 스토어를 기획하게 되었고, 그 1호점으로 20년 역사를 지닌 경기사무소 부지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1월 첫주부터 본격적인 증축에 돌입할 수 있었고, 운명처럼 훌륭한 기업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IBK 기업은행과 HS애드가 그 주인공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기업의 성격과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함께한다는 가치관이 맞물려 무려 1억 원이라는 금액을 선뜻 후원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1개 지점마다 1억 원씩 5호점 오픈까지 후원하겠다고 협약한 상태며, 기업의 봉사단이 현장 봉사에 참여, 캥거루 스토어를 짓고 꾸미는 데 임직원들이 직접 힘을 보태주기까지 했습니다. HS애드 역시 아이를 지키며 세상을 향해 도약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상징하는 캥거루를 어여쁜 CI로 승화, 캥거루 스토어의 밝고 따스한 이미지를 만들어주었습니다.

물론 과정이 쉽지않은 않았지만, 싱글맘이라는 사실을 오픈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지원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용기 있는 엄마들이 있었고, 이제 이들이 롤모델이 되어 자신과 사회에 더 당당한 엄마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한 책임감과 용기를 지닌 만큼, 캥거루 스토어에서의 경험과 우리회의 직업 훈련의 힘까지 보태진다면 사회 어느 분야로 진출해도 몇 사람의 몫을 해낼 것이라 우리회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좀 더 오픈된 마음으로 우리 미혼한부모들을 바라봐주기를, 후원 물품을 구입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소박하지만 작은 노력들이 잘못된 우리 사회의 편견을 바꾸는 데 일조하기를 바란다”는 IBK 기업은행 권선주 은행장의 바람과 “혼자가 아닌 우리가 손을 잡고 헤쳐나간다는 마음이 멀리 퍼져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수원시 감동근 제1부시장의 축사처럼 미혼한부모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캥거루 스토어를 통해 새로운 발자취를 남기게 될 앞으로의 나날들, 그것은 바로 ‘우리’라는 이름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캥거루 스토어 1호점 연락처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616번길 17-3(우만동)
전화번호 : 031-217-7081

‘꽃GoodGood한 엄마’ 캠페인 후원

1899-0923 / 02-331-7082
www.holt.or.kr

‘꽃GoodGood한 엄마’는 미혼 양육모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꽃GoodGood(좋은)한 엄마로 살아가길 희망하고 응원하는 캠페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미혼양육모들이 더욱 꽃GoodGood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세요!

1. 캥거루 스토어 1호점 오픈 테이프 커팅식
2. 캥거루 스토어 내부를 둘러보고 있는 말리 홀트 이사장과 김대열 회장
3. 캥거루 스토어에서 판매되는 물품들





Q. 새로운 출발을 하는 날입니다. 설레임과 걱정이 공존할 것 같은데 기분이 어떠세요?

떨리기도 하고,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열심히 해야지 의욕이 불타오르기도 하고 복합적이예요. 캥거루 스토어 지원 당시 작성해 제출한 자립계획서대로, 노력한 만큼 앞으로 더 좋은 날이 펼쳐질 거란 기대감과 즐거움이 가장 크고요.

Q. 혹시 이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나요?

웨딩 앨범 작업을 했어요. 일의 특성상 거의 매일 밤 11시~12시에 퇴근을 하니 피곤한 건 둘째치고 아이를 돌보기에는 무리가 컸어요. 이제 겨우 8개월이라 오래 떨어져 있기가 힘들거든요. 결국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Q. 일을 그만 두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텐데, 가장 힘든 건 어떤 부분이었나요?

아무래도 일자리를 구하는 거였죠. 아이를 돌봐야 하는데 웬만한 곳은 시간이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 정식 일자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죠. 아르바이트는 시급도 적고 불안정하고요.

Q. 캥거루 스토어에는 어떻게 지원하고 뽐히게 됐나요?

센터에 나와서 취직 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담당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사실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어요. 싱글맘인

걸 드러내놓고 일을 시작해야 하는 탓에 사람들의 선입견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싱글맘 친구들이 밝고 씩씩하게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저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성한 자립계획서와 담당 선생님의 추천서를 제출했고, 당당히 합격했죠.

Q. 힘든 시기를 겪었던 만큼 캥거루 스토어에 대한 기대가 클 듯합니다.

네. 아이를 돌보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아요. 근무 조건도 좋아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근무하면 되고, 시급도 높은 편이죠. 게다가 이 프로그램이 자립 교육의 일환이라 직업 훈련이 병행돼요. 취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술들을 배울 수 있다는 얘기고. 개인적으로는 바리스타와 제과제빵 등 다양한 분야에 욕심이 있는데,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앞으로의 생활이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커요. 그런 희망을 갖게 됐다는 게 가장 좋은 일이죠. ㅎㅎ.

Q. 캥거루 스토어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1호점이 잘 돼서 5호점까지 더 크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많은 싱글맘들이 지원해서 꿈을 찾아갈길, 이 세상과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당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길 바라요. ㅎㅎ

사랑을 더하는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을 아시나요?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 중에는 미혼한부모 가정에 용기를 주고, 자립을 돕기 위한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이 있으며, 앞서 살펴본 캥거루 스토어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는 싱글맘은 물론 아이의 바른 성장을 지원, 궁극적으로는 건강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나가기 위함인데, 과연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을까요?

전문성과 신뢰를 가진 '상담 시스템'

혼자라는 생각에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말 한 마디와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이에 임신과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한부모가정을 위해 상담 시스템을 구축, 심리 상담과 아동 장래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센터 연락처 02-331-7081~2

아동 양육비 지원하는 '꾸꿍한 엄마'

미혼한부모가정이 가장 힘든 것은 경제적 어려움일 겁니다. 이에 매월 지원금을 지급하는 '꾸꿍한 엄마'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혼한부모가 세운 지원금 사용 계획에 따라 그들의 자립과 아동 양육에 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 물품 지원하는 '365 베이비 케어 키트'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부족으로 미혼한부모들이 아동을 포기하지 않도록 물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분유, 기저귀와 물티슈 등 양육 물품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단기 또는 장기로 지원됩니다.

따스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주거지원사업'

주거와 자녀의 안정된 양육을 돕기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미혼한부모(무주택 세대주)에게 주거를 지원하고 있습니

다. 입주자는 임대 기간 동안 관리비와 공과금만 부담하며, 주택 면적에 따라 1~2가구가 입주해 생활하게 됩니다. 또한 부모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이 상시 실시됩니다.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운영

전국 4개 지역(서울·수원·대전·대구)에서 6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숙식과 의료 제공, 심리 상담과 치료, 자립 교육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미혼한부모의 건강한 자립과 아동의 안정된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교육의 권리를 보호하는 '대안학교' 운영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학업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미혼한부모들을 대상으로 대안학교인 '홀트고등학교'와 '아침뜰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고등학교 과정을 수료함으로써 사회 진출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교육·문화 프로그램 자조모임

'사랑더하기, 사랑나누기'

한부모가족복지센터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미혼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매월 1회 교육과 문화 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홀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미혼한부모가정이라면 언제든지 참여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걸었던 위탁모의 길, 이제 제가 걸어요”

장은주 위탁모



레드 컬러의 헤어, 화려한 액세서리로 꾸민 장은주 위탁모의 첫인상은 강렬했습니다. 상상했던 위탁모들과 조금 다른 모습에 놀란 것도 사실이지만,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아이를 향한 그녀의 마음에 두 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높이면 폭 못 자는 아기를 위해 무려 2시간이나 되는 인터뷰 시간 동안 아기띠를 매어 엎고 안아 재웠던 그녀의 모습에서 참 위탁모이자 엄마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녀의 님은꼴 인생

장은주 위탁모의 어머니는 30년 가까이 우리회 위탁모로 활동하시며 108명의 아기를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5년 전, 어머니의 뒤를 이어 장은주 위탁모도 우리회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봤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어머니가 위탁모 활동을 시작하셨거든요. 사실 학업에 열중하고 관심을 받아야 할 중요한 시기였지만 전 엄마가 하시는 일이 그저 좋았어요.”

집안 구석구석 흩어진 장난감에 아이들 울음소리까지, 한창 예민한 시기에 힘들 법도 했을 텐데 그녀는 짜



증 한 번 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엄마의 품을 만들어주시는 어머니가 존경스러웠다 말하는 장은주 위탁모. 어머니가 걸었던 쉽지 않은 길을 자연스럽게 따라 걷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듯합니다.

“힘들긴요~ 아이들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데요~”

30년 가까이 위탁모 일을 하면서 남의 아이를 나의 아이로 키운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건 바로 그녀의 어머니일 터. 과연 자신과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딸의 결정에 반대는 없었을까요?

“엄마보다는 주위분들의 걱정이 많았어요. ‘네 어머니 고생하시는 거 평생 봐왔으면서 어떻게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느냐고 말씀해주실 때마다 어머니와 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들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데요~’(웃음).’”

어머니는 이미 아이들의 시습 같은 눈망울과 티 없는 미소 한 번이면 힘든 것도 싹 잊혀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렇기에 반대는커녕 장은주 위탁모의 숨은 조력자로 늘 많은 도움과 응원을 보내주고 있는 것이겠죠.

“열세 살, 열다섯 살 두 자녀를 둔 주부라 양육에는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큰 오산이었어요. 아기 양육을 안 한 지 10년이 넘어서인지 아기를 만난 순간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죠. 하지만 30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양육해온 베테랑 선배님, 어머니가 계셔서 많은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었답니다.”

이별을 극복하는 방법은 또 다른 양육

지금까지 5년 동안 위탁모로 활동하면서 총 3명의 아이를 양육해온 장은주 위탁모. 그녀는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아이들을 돌봐왔는지 이제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씻기고, 재우고, 밥을 먹이며 24시간 함께하다 보면 전혀 남의 아이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진짜 내 아이죠. 그러니 아이들을 입양 보내게 되면 그 이후 느껴지는 공허함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마음을 달래보려고 오랜만에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해봤지만 우울함은 치유되지 않더라고요. 아이와의 이별을 극복하는 방법은 단 하나, 또 다른 아이를 양육하는 것뿐인 것 같아요. 이건 아마 우리 어머니를 포함한 모든 위탁모들의 마음일 거예요.”

먼 훗날 어머니처럼 자신이 위탁한 아이들을 꼭 만나고 싶다 말하는 장은주 위탁모. 그 소박한 꿈이 꼭 이뤄져 그녀가 함께한 아이들과 활짝 웃는 모습을 보게 되길 바라봅니다. Holt



작지만 큰 변화를 몰고 온 나눔 이야기, 후원기업 쉬즈라루즈



홀트 대구사무소와 포털사이트 다음 우수카페 '대구맘(대구 거주 엄마들의 육아 커뮤니티)'이 공동 개최하고 있는 '대구맘 알뜰장터'는 2008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9회를 맞이한 행사입니다. 수익금을 우리회에 기부하며 나눔활동에 동참하고 있는 이 뜻깊은 행사에는 여러 기업이 물품 후원 등의 방법을 통해 참여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곳이 바로 여성가방 쇼핑왕 쉬즈라루즈(주)루나바이컴퍼니(대표: 명영숙)입니다. 이 나눔 행사를 통해 임직원의 정기후원, 사내 기부문화 활성화 등의 변화까지 경험하게 됐다는 쉬즈라루즈의 작지만 큰 나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쉬즈라루즈에 붙어온 '나눔'이라는 나비효과

쉬즈라루즈(주)루나바이컴퍼니는 창립 10년이 된 여성가방 쇼핑왕입니다. 우리회 나눔활동에는 2012년부터 동참하고 있는데, 어린 나이에 엄마라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된 미혼모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곤 차마 외면할 수 없었던 마음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쉬즈라루즈 가방과 신발 등의 기부를 통해 우리회에서 진행하는 바자회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나눔 행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쉬즈라루즈 제품에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많은 판매가 이루어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매우 기쁘고 설레었죠.”

명영숙 대표는 조용히 시작된 서로의 움직임이 하나의 마음으로 모여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구나, 느꼈을 때 나눔과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됐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회사에서는 생소했던 기부문화가 바자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정착됐고, '함께 나누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가장 큰 긍정적인 효과 중 하나라고.

1. 쉬즈라루즈와 홀트아동복지회 협약식
2. 쉬즈라루즈와 함께하는 홀트 대바자회



“임직원 중 일부는 정기후원을 실천 중이에요. 회사 차원에서 앞으로 바자회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봉사 방법을 찾고 있고, 홀트의 모토인 'Love in Action'처럼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저소득층과 청소년들을 위해 기부 참여를 독려하고 있죠. 지난 3년은 어려울수록 사랑을 전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저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매년 봄, 바자회로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할 수 있어 저희는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회와 지역민, 그리고 기업이 함께하는 '대구맘 알뜰장터'

우리회와 대구맘의 인연은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구맘이 아나바다 알뜰장터의 수익금을 우리회 아이들의 후원금으로 선뜻 내놓으면서 깊은 인연이 시작됐으며, 현재는 8회째를 맞이하는 사생대회를 통해서도 작은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첫해의 알뜰장터는 가정에서 쓰던 물품 중 나누고 싶은 물품을 아나바다 장터에 팔아 그 수익금을 기부하던 단순한 행사로 시작했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해맑은 어린이서점과 기타 협력업체에서 기부해준 물품을 나누는 '경매 나눔 행사와 쉬즈라루즈와 같은 기업의 후원물품 기부를 통한 바자회 나눔 행사'가 추가, '아나바다 장터+경매+바자회' 세 가지 아이템으로 실시하는 작지만 큰 나눔 행사로 성장해왔습니다.

쉬즈라루즈 명영숙 대표의 “조용히 시작된 움직임이 하나의 마음으로 모여 전달되고 있다”는 나눔 소감처럼, 인터넷 카페 회원들의 아나바다에서 시작된 작은 나눔이 지역사회 업체들에게 전해져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큰 파장의 나눔 바이러스로 퍼져나가게 된 좋은 경우입니다.

대구맘 김지은 대표는 “아이들을 위해 뜻깊은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아나바다 알뜰장터를 시작한 게 벌써 8회나 되었다. 회원들의 노력과 협력업체, 후원기업이 없었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나눔을 실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나눔은 작은 손길들이 모여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그 진가를 제대로 발휘하는 것 아닐까요?

앞으로도 쉬즈라루즈와 같은 기업의 물품 나눔, 대구맘과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의 나눔 행사 지원 등 지역사회들의 노력과 다양한 매체의 관심이 계속된다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나눔 전도사가 되는 날도 머지않아 찾아올 것입니다.

글 _ 김원태 · 대구사무소

장애인 가족 한마음 페스티벌

지난 5월 9일,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장애인과 가족, 지역주민을 위한 축제 '고양시장애인가족한마음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3회를 맞는 이 행사에는 전통휠체어를 타고 방문한 노부부, 뇌병변 장애를 가진 딸아이와 함께 온 어머니, 어린 자녀들과 함께 나들이 나온 젊은 부부, 삼삼오오 짝지어 온 청소년 등이 함께해 약 2,000명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축제를 즐겼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고양 국제꽃박람회 기간 중에 행사를 열어 더욱 아름답고 행복한 축제의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기와 재능으로 뽐낼 뽐친 고양시민의 재능대회 '공연관'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식과 공연 무대를 위해 멋진 개그맨 김인석과 가수 하명지가 함께 자리해 사회를 맡아주었습니다. 부드럽고 위트 넘치는 진행에 행사의 재미가 더욱 커졌습니다.

'케세라세라 고양' 음악에 맞추어 고양시민체조로 가볍게 몸을 풀 후, 드디어 행사의 하이라이트! 기다리고 기다리던 '한마음재능대회'가 열렸습니다. 각 동네에서는 내로라하는 재능 많은 9개 팀이 참가해 끼와 실력을 뽐냈습니다.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의 '그대를 사랑합니다' 신나는 난타공연을 시작으로, 고양시대화노인종합복지관 김수훈 님의 '나그네 설움' 노래, 고양시일산노인종합복지관의 화려한 에어로빅, 고양시원돌종합사회복지관의 실버대학 웰빙댄스, 고양시문촌9종합사회복지관의 우쿨렐레 연주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의 우아한 한국무용, 고양시덕양노인종합복지관의 활력 넘치는 에어로빅,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댄스팀 스텝스의 춤, 고양시장애인연합회의 행복한합창단이 풍성한 무대를 꾸며주었습니다.

걸그룹 가수 '퐁넵이'의 앙증맞은 공연과 '베드키즈'의 색시하고



신나는 공연, 가수 하명지와 박정수의 멋진 축하공연도 이어져 음악과 춤을 통해 모든 세대가 어우러서 웃음 가득한 축제를 즐겼습니다.

우리들의 오감을 즐겁게 해준 '체험관'

이번 행사에는 놀거리, 먹을거리도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추억의 놀이에서 달달한 달고나를 직접 만들어 먹으며 어른들은 옛 추억을 떠올리고, 아이들은 즐거운 놀이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먹거리 나눔'에서는 슬러시와 빵튀기, 팝콘을 나누어 먹었는데 특히 슬러시는 더운 날 오아시스처럼 반가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슬러시를 먹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마저도 즐거워 보였습니다. '팔찌와 목걸이 만들기' 체험은 특히 어린이 친구들에게 인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비즈를 꿰어 팔찌를 만들고, 크레파스와 색연필로 예쁘게 장식한 나무 목걸이를 직접 만들며 숨쉬를 뽐냈습니다.

'장애인스포츠체험'은 TV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도 소개되었던 조정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해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

1. 고양시원당종합사회복지관의 난타공연 '그대를 사랑합니다'
2. 고양시민체조
3. 팔찌와 목걸이 만들기 체험 부스
4.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OX 퀴즈



니다. 자원봉사활동을 나온 군인들과 민간인들의 조정경기 시합도 큰 재미를 주었습니다(과연 누가 이겼을까~요?).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예쁜 사진을 찍어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포토존'을 운영해 사진도 찍어주고, '캐리커처 그려주기'로 개성 만점, 인기 만점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복지관은 이런 일을 합니다 '홍보관'

우리 고양시에서는 장애인, 어르신과 같은 복지 대상자를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복지관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를 지역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고양시의 복지관과 장애인연합회가 총출동했습니다.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 OX 퀴즈'를 열어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그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오마중학교 1학년 김범수 학생이 당당히 1등을 차지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1등을 하게 되어서 저도 당황했어요. 초등학교 때 한 반에 한 명씩 장애인 친구들이 있어 함께 지냈는데, 장애를 가진 친구를 위해 도우미 활동을 한 경험이 많은 도움된 거 같아요"라며 기쁨의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밖에도 안대로 눈을 가리고 흰 지팡이를 이용해 길을 걷는 시각장애인 체험과 휠체어를 타고 지체장애인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쪽에서는 커피 시음행사가 열린다는 소문을 듣고 모여든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바로 고양시장애인직업재활협회에서 준비한 '장애인생산물홍보관'입니다. 이곳에서는 두부, 쿠키, 브라우니, 캡슐커피, 더치커피 등 장애인이 직접 만든 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만든 복사용지, 커피백, 종이컵, 앞치마, 도자기 등을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고양시덕양·일산·대화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 생애 체험, 문촌9종합사회복지관에서 팝콘 나눔, 원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 희망 메시지 나눔, 일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후원·나눔문화 캠페인, 원돌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업사이클링 활동을 통한 친환경 생활 프로젝트, 고양시장애인연합회 홍보물 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고양시장애인가족한마음페스티벌을 통해 멋진 공연도 보고,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에 참여하고, 다양한 체험과 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보람 있고 뿌듯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장애를 넘어 모두가 한마음이 되는 그 날까지,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쭉~욱 달리겠습니다!

글 _ 이은영 ·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풍요로운 노년이 미소를 짓다

어르신 마음 탄탄교실



대구광역시 달서구분리종합사회복지관 관할 지역 중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두류1·2동에 위치한 북카페에서는 4월에 피어나는 들꽃처럼 생기 넘치는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입가에 절로 미소 짓게 만드는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뒷받침해줄 든든한 조력자, 바로 '어르신 마음 탄탄교실'과 함께이기 때문입니다.

노년기는 우리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닐지, 감히 짐작해봅니다. 고독과 싸우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듯 살아가시는 어르신들께는 우울증이 오기 십상이죠. 달서구분리종합사회복지관은 어르신들의 우울증 문제를 조금이나마 예방하기 위해 '어르신 마음 탄탄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어르신들의 흥미와 욕구를 고려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해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과 동시에 이웃과 함께하는 외부활동을 접목시킨 것이죠. 어르신마음 탄탄교실을 통해 어르신들께서 노년기에 느끼는 고독과 우울증에 함께 맞서며 어르신들의 행복한 여생을 만들어가는 데 작은 도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여생을 위해

도화지, 크레용, 붓, 물감 등 손자와 손녀들의 준비물을 챙기며 구경은 해봤지만 정작 사용은 못해보셨던, 어색하기만 한 미술도구를 앞에 두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마음이 어르신들의 얼굴에 역력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도화지를 멀뚱멀뚱 바라보지만 하던 어르신들. 하지만 막상 프로그램이 시작되자 어린 시절의 추억을 그려보기도 하고, 가슴 속에 고이 품고 계셨던 무언가를 소망나무에 담으며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달랠 하얀 도화지를 가득 채워나갔습니다. 도화지가 가득 채워지면 강사 선생님의 재미있고 친절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선생님의 그림 해석을 통해 어르신들은 자신이 그린 그림에 담긴 또 다른 의미에 대해 깨닫고 때로는 가슴 속에 감춰왔던 응어리를 풀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림 해설보다 더 재미있는 시간은 바로 어르신들 간 대화입니다. 어르신들은 서로의 그림을 비교하며 자연스럽게 즐거운 대화의 장을 형성합니다. 마치 두류시장의 장날을 연상하게 하는 떠들썩한 분위기는 그림치료에 대한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높은 관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밖에도 어르신마음 탄탄교실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습니다. 신명나는 음악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접목시켜 끝나는 시간이 너무나도 아쉬웠던 웃음치료, 지방의 특색이 묻어나는 옛 이야기와 함께 어릴 적 고향의 내음을 떠올리게 하는 추억의 민요교실, 예쁜 손녀를 닮은 꽃



을 꽃음으로써 은은한 향기가 심신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원예교실, 명상을 통해 지난날의 자신을 되돌아보고 마음의 깊은 안정을 도모하며 연령대에 적합한 신체 움직임으로 건강을 책임지고 질병을 예방하는 행복 기체조, '초록색은 전화 걸기, 빨간색은 전화 끊기'밖에 몰랐던 휴대폰의 다양한 기능을 배워보며 자식들과 손자·손녀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는 시간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풍요로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서툴지만 탄탄하게 어르신마음 탄탄교실을 진행했습니다.

"요새는 이거 기다리는 맛에 삽니다!"

총 8회에 걸쳐 어르신들과 함께할 때마다 작은 변화가 눈에 보입니다. 처음에는 하얀 도화지를 앞에 두고 멍쩍은 웃음만 지으셨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하얀 도화지에 우리네 인생을 채우시듯 크레용을 쉽게 놓지 못하던 어르신들. "선생님요~ 오늘도 최고였어요! 요새는 이거 기다리는 맛에 삽니다!" 하시며 웃는 얼굴로 교육실을 나서는 어르신들. "이거 없으면 우짤 뻔했노~ 이거 언제 또 하노?" 하시며 아쉬운 마음을 표현하시는 어르신들은 강사님이 힘을 낼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내가 어릴 적에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미술활동도 하고 노래도 같이 불러보고 하니 그때 못 배웠던 것들을 지금이라도 배운다는 생각에 정말 기뻐요. 특히 그림을 그리면서 옛날 생각이 나서 기분도 참 좋아지고, 손과 다리를 활용해서 안 쓰던 근육들도 움직이고 하니 젊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탄탄교실 끝나고 경로당 친구들에게 자랑을 했더니 우리 친구들도 같이 와보고 싶다고 해요. 선생님~ 다음에 또 오셔서 이렇게 재미있는 활동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 임○○ 어르신 -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어르신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아들·딸보다 낫다며 수없이 감사의 마음을 전해오실 때는 힘들었던 기억이 깨끗이 사라지곤 합니다. 또한 본 프로그램의 궁극적 목적인 '노년기 우울증 예방'에 대해 자그마한 성과를 달성한 것 같아 매우 보람찬 시간이 되었습니다. #H0T

글 _ 도윤지 · 달서구분리종합사회복지관



● **입양의 날 기념식** ●

서울사무소



제10회 입양의 날 기념식이 5월 9일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입양가족, 입양기관 임직원 등 약 9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또한 5월 13일은 입양주간을 맞이해 대학교에서 입양 인식개선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강원사무소

강원사무소가 주최·주관하는 제10회 입양의 날 기념식이 5월 12일 국립춘천박물관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은 입양가정 이야기를 담은 영상물 상영과 유공자 포상, 공개입양가족 사례발표 순으로 진행되었다.

경기사무소

5월 11일 경기도청 주관으로 입양의 날 기념식이 용인에버랜드에서 열렸다. 경기사무소 조혜진·오현경 입양가족이 입양유공자로 선정돼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경남사무소



경남사무소는 입양의 날을 맞아 5월 11일, 창원시 중앙동에서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광주사무소

제10회 입양의 날 기념 입양가족 페스티벌이 5월

9일 광주 MF광주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입양부모님들과 입양아동 총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채로운 행사들로 꾸며졌다.

대구사무소

5월 9일 대구사무소는 제10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를 대구 이월드·안데르센 하우스에서 진행했다. 기념식 외에 견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입양 가족들과 친목 도모의 시간도 가졌다.

부산사무소



부산시 구덕 청소년수련관 잔디광장에서 제10회 입양의 날 기념식 및 가족한마당이 5월 9일 개최되었다. 또한 12일에는 거리 캠페인을 펼쳐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입양 활성화에 기여했다.

인천사무소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인천사무소가 주관한 제10회 입양의 날 기념식 및 한사랑 가족축제가 5월 11일 인천시여성가족재단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내입양 활성화와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한 13명의 유공자를 포상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사무소

전북사무소는 5월 11일 입양의 날을 맞이해 전북 전주 객사에서 입양 활성화를 위한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홍보 리

플릿을 배부하며 입양문화 정착을 위해 캠페인을 펼쳤다.

충청사무소



충청사무소 입양가족들은 '참 행복한 우리가족 캠프'라는 주제로 5월 15일~16일 대전 동구청소년자연수련관 가족캠프에 다녀왔다. 입양가족 및 자녀들은 자연을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사회공헌** ●

LIG손해보험, '365 베이비 케어 키트' 협약 체결



LIG손해보험(대표이사 사장 김병현)과 김정은 홍보대사가 참석한 가운데 '365 베이비 케어 키트' 협약식 및 기부금 전달식이 5월 14일 진행됐다. 5,000만 원의 후원금으로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분유, 기저귀 등 양육 물품을 미혼모들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롯데홈쇼핑 나눔 릴레이 기부금 전달식



5월 12일 롯데홈쇼핑(대표이사 강현규)이 우리 회를 방문해 미혼양육모를 위한 후원금을 전달

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 양육모 30명에게 10개월 동안 아동 양육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위탁아동들을 위한 교육 지원

신한은행(신한은행 노동조합 유조선 위원장)이 4월 13일 우리회 위탁아동들을 위한 교육비를 전달했다. 후원금은 신한은행 임직원들이 노사합의를 통해 매월 급여에서 1만 원씩 모은 '신한가족 만 원 나눔 기부'를 통해 모아졌다.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 MOU 체결



우리회와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이종복 목사)가 4월 2일 사회공헌 협약식을 가졌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미혼한부모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폴리텍대학 산학 협력 협약 체결



우리회와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학장 이인배)는 3월 12일 산학 협력 협약식을 진행했다. 두 기관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 함께 협력해 해외기술봉사단 파견 등 해외 이웃들의 생활 여건을 더 효과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 **본부** ●

김대열 회장 자랑스러운 대구대인상 수상

우리회 김대열 회장은 5월 6일 대구대학교 개교



59주년 기념식에서 장애인과 어린이를 위한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자랑스러운 대구대인상'을 수상했다.

'2015 홀트大巴자회' 성황리에 마쳐



4월 30일 우리회는 미혼 양육모 지원을 위한 '홀트大巴자회'를 열었다. 이번 바자회에서는 기업의 물품 기부를 통해 생활용품과 완구류 등 다양한 물품이 판매되었으며, 수익금은 미혼모 자기족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미혼양육모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순임 위탁모, 오운문화재단 우정 선행상 수상



20년간 58명 아이들의 위탁모가 되어준 이순임 어머니께서 4월 22일 코오롱 오운문화재단 제15회 우정 선행상 시상식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김정열 팀장·이인실 선생님 정년 퇴임식

우리회 법인팀 김정열 팀장님과 입양가정지원센터 이인실 선생님의 정년 퇴임식이 3월 30일 개최되었다. 이날 우리회는 소외된 이웃을 향한 복지사업 향상을 위해 헌신한 두 분을 통해 그간의 활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주영훈·이윤미 부부, 홀트 패밀리 위촉



우리회는 3월 26일 주영훈·이윤미 부부를 홀트 패밀리로 위촉했다.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재능기부와 봉사활동을 펼쳐온 두 부부는 앞으로도 우리회 복지사업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제34회 홀트장학금 수여식



우리회는 2월 24일 김대열 회장, 서영자 서울후원회 고문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의 대학생 15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연간 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장학생들은 국내·외에서 '홀트 장학생 서포터즈'로 활동할 예정이다.

● **지방사무소** ●

부산사무소, 아동학대 예방 유관기관 간담회 참석

3월 13일,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주최한 아동학대 예방 유관기관 간담회에 부산사무소가 참석했다. 앞으로 매월 19일을 '아이 허그데이'로 지정해 부산시 아동학대 근절 및 예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인천사무소, 이월섭 위탁모 국무총리상 수상



5월 9일 보건복지부 주관 중앙입양원 주최로 진행된 제10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에서 우리회 인천사무소 이월섭 위탁모가 국무 총리상을 수상했다.

충청사무소, '위탁모 힐링 나들이' 실시



충청사무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대전후원회 지원으로 5월 6일 홀트 위탁모 힐링 나들이를 실시했다. 앞으로 위탁모의 노고를 위로하고 위탁모 간의 단합을 위해 정기적으로 위탁모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 홀트일산복지타운 ●

홀트타운 가족들이 그리는 '행복한 세상' 展



홀트타운 식구들의 그림과 사진전이 5월 4일부터 15일까지 여의도에 있는 IFC Seoul에서 개최되었다. 홀트타운 청소년 작가 3명의 그림과 장애인들의 일상을 기록한 사진 작품을 전시했다.

해리 홀트 할아버지 51주기 추모

4월 28일 우리회 설립자인 해리 홀트 할아버지의 51주기 추모예배가 홀트교회에서 열렸으며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진한 감동을 안겼다.

● 홀트학교 ●

'사랑의 징검다리 봉사단'과 함께하는 한마당 축제

5월 6일 제93회 어린이날을 기념해 '사랑의 징검다리 봉사단'과 함께하는 한마당축제가 열렸다. 여기에서는 군악대의 흥겨운 공연과 장기자랑, 퍼레이드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 종합사회복지관 ●

고양시장애인복지관,

전국지적장애인농구대회 개최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제8회 고양시장컵 전국 지적장애인 농구대회를 4월 9일부터 10일까지 재할스포츠센터에서 진행했다.

독거어르신 청춘나들이 '꽃보다 청춘'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4월 29일 지역 내 독거어르신 185명을 모시고 청도로 청춘나들이를 다녀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온천욕과 딸기 따기 등 오감만족 체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지역 주민 문화체험 행사 '봄이 왔나, 봄'

4월 21일 운봉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역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창녕 유채축제 및 여수 아쿠아리움 방문을 통해 지역주민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개관 10주년 기념행사 개최



하남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4월 15일 개관 10주년을 맞이해 지역 주민을 위한 행사를 개최했다. 국악콘서트와 노래자랑을 진행했으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경희대병원 무료 건강검진도 제공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발대식이 3월 24일 열렸다. 참여 어르신들의 선서문 낭독을 시작으로 친절교육과 안전교육 등 다양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졌다.

달서구본리종합사회복지관,

'우리동네 가수왕' 촬영



달서구 본리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3월 24일 티브로드 방송 프로그램 <우리동네 가수왕-본리복지관> 편을 촬영했다. 10명의 지역 어르신들이 노래교실을 통해 그동안 쌓은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했다.

● 미혼모자시설 ●

아름들·고운들·아침들 시설 유형 변경

법인 산하 3개 기본생활지원형 미혼모가족복지시설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공동생활지원형 미혼모가족복지시설로 변경된다.

※ 미혼모가족복지시설 :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2년간 숙식 보호, 양육 지원, 직업교육 지원 등 보다 자립에 중점을 둔 서비스 제공.

아침들, 개원 10주년 기념 홈 커밍데이



아침들이 개원 10주년을 맞이해 퇴소 미혼모 초청 홈 커밍데이를 개최했다. 입소자와의 만남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의지 고취와 육아정보 교류 등의 기회를 가졌다.

마포클로버, 맨드롱 또뚝 가족캠프

5월 7일부터 9일까지 마포클로버 가족들은 제주도 '맨드롱 또뚝 가족캠프'에 다녀왔다. 제주 자연 속에서 안정을 찾으며, 모자 간 정서적 유대감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마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

'2015 손주를 돌보는 가장 완벽한 방법'



3월부터 5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손가방(손주를 돌보는 가장 완벽한 방법)'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손주와의 행복 대화법 교육, 음악치료 등을 통해 조부모들은 양육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

하남시건강지원센터, 노년기 교육 '스마트한 노후'



5월 4일부터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스마트폰 사용 방법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습득을 통해 가족 간 소통의 장을 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가정의 달 및 개소 기념행사 개최

수성구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수성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4월 29일 가정의 달과 개소일을 맞이해 두산문화센터에서 '표현하지 못해 미안해, 그래도 늘 사랑해 우리 가족!'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사랑의 약속 판 만들기, 가족 건강 지수 알아보기 등을 통해 가족 간 소통과 이해의 폭을 확장시키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춘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와 함께하는 한국 문화 체험



한국 전통 장 담그기 행사인 '다문화와 함께하는 한국 문화 체험'이 3월 11일 진행됐다. 전통 장 담그기 체험을 통해 향리에서 일정 기간 숙성시켜 먹는 한국 전통 숙성 방식을 체험했다.

● 전주영아원 ●

전주영아원, 직원야유회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직원들 간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위한 야유회가 열렸다. 직원들은 자연을 만끽하며 친목을 다지고, 소속감과 자긍심을 갖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어린이집 ●

홀트 대구·하남은방울어린이집, 텃밭 모종 심기



4월 6일 식목일을 맞이해 홀트대구어린이집과 하남은방울어린이집은 작은 텃밭에 모종 심기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는 아이들이 작은 식물도 소중히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말기농장 체험 나들이

마포어린이집은 4월 22일 김포로 말기농장 나들이를 다녀왔다. 모든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밭에 열린 잘 익은 딸기를 직접 따보고, 향기도 맡고 맛도 보며 오감만족 체험 시간을 가졌다.

중동어린이집, 마포구 어린이 대축제 참여

중동어린이집이 5월 4일 난지 잔디공원에서 열린 마포구 어린이 대축제 '마포동이 모여라'에 참여했다. 아이들은 에어 바운즈, 전통놀이, 버블 쇼, 부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

홀트어린이집, 어버이날 행사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해 홀트어린이집 아이들이 지역 내 노인회관을 방문해 카네이션 꽃바구니를 전달해드리고 오카리나 연주와 할머니, 할아버지께 안마도 해드리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고아가 될 준비를 한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입양에 대한 슬한 오해와 여전한 편견...
피보다 진한 사랑으로 탄생한 가족

겪어보지 않고는 절대 모를 행복으로
'가족 꽃이 피었습니다.'



※ 이 책은 홀트아동복지회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입양 가족사진 공모전에 출품된 사연과 사진을 토대로 엮은 입양 에세이입니다.
※ 도서는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 또는 교보문고, 알라딘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 복지사업의 중심은 “아동 행복”입니다

● 후원사업 소개

위탁아동양육 후원

친부모가 키울 수 없어 홀트의 보호 아래 자라는 위탁아기들의 분유, 기저귀 등 생필품 지원과 교육비, 의료비, 재활 치료비로 사용됩니다.

한부모가족 후원

도움이 필요한 미혼부모를 위해 상담과 출산 지원, 양육비 및 아동물품 지원, 의료와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가정 아동 후원

저소득가정 및 장애인가정,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꿈과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비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후원

생활 지원과 의료 지원이 필요한 장애아동과 장애인을 위해 복지시설과 특수 학교를 운영해 체계적 치료와 자활훈련을 돕고 있습니다.

장학 후원

1982년부터 시작한 '홀트장학금'과 저소득가정 및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꿈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아동결연 및 사업 후원

캄보디아, 몽골 빈민가정 아동을 위한 교육과 급식 지원, 보건 서비스 및 의료 지원을 펼쳐 해외 빈곤국에 희망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 정기후원 1899-0923
- 후원문의 02-331-7074
- ARS 060-700-1006
- 홈페이지 www.holt.or.kr
- 후원계좌 479037-01-000461(국민)
홀트아동복지회



아름다운 청소년 선발

제 9 회

아름다운 꿈을 가진 청소년을 찾습니다!

홀트아동복지회는
따뜻한 마음을 갖고 꿈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청소년을 응원합니다.

19세 미만의 꿈과 희망을 가진 청소년으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과
장래계획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청소년을 선발합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수한 학업성적으로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재 발굴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제9회 아름다운 청소년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10명을 선발합니다.

특전	주최기관 명의의 상장, 미래의 꿈을 위한 200만원 꿈 지원금, 아름다운 청소년 캠프
서류접수 마감	2015년 7월 12일 (일)까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5년 7월 21일 (화)
면접일자	2015년 7월 31일 (금)
합격자 발표	2015년 8월 4일 (화)
시상식	2015년 8월 6일 (목)
캠프	2015년 8월 13일 (목) ~ 14일 (금) 1박 2일
문의	홀트아동복지회 02) 331-7078

※ 선발 후 시상식, 캠프, 교류프로그램에 모두 참석 가능한 청소년이어야 하며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선발 후라도 대상에서 취소됩니다.
언론 및 방송에 기사화 될 수 있습니다.

아기를 지키는 한 땀



DEAR FAMILY BOX

DEAR FAMILY BOX란?

구름빵 인형을 직접 만들어 가족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미혼양육모 가정 아이들을 돕는 참여형 캠페인입니다.



DEAR FAMILY BOX 만드는 법



1. 인형 스킨을 뒤집어, 목 뒷부분의 구멍을 통해 솜을 넣어주세요.



2. 구석구석 잘 넣어준 후 바느질하세요.



3. 준비된 흰색 펠트에 검은색 실로 미리 눈을 만들어주세요.



4. 주머니와 눈을 바느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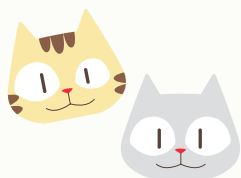
5. 줄무늬와 코, 입, 눈썹을 바느질하세요.



6. 나만의 재료를 목에 장식해주면 예쁜 홍비(홍시)인형이 완성됩니다.

DEAR FAMILY BOX 참여를 통한 후원금은

가족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미혼 양육모 가정 아이들의 양육기금(분유, 기저귀, 의료비 등)으로 전달됩니다.



구매 방법 (문의 : 02-331-7142, 후원개발팀)

온라인 주문 방법

- ① 롯데아동복지회 홈페이지에서 '다이패밀리박스' 캠페인 클릭
- ② 캠페인 페이지 하단 또는 좌측의 '구매하기' 버튼 클릭
- ③ 캐릭터 '홍비' or '홍시' 및 수량 선택해 주문

